

軍陣齒科界에 回顧

鳥致院 서울齒科醫院 院長
豫備役陸軍大領
金 永 熙

잊지 못할 그 일들
解放된지 於焉 30年!
國軍創設 벌써 27年!

30年前에 齒科軍醫官 當時의 옛 일을 더듬으면서 나의 人生과 青春 10年을 불사르던 그 時節을 回想하니 그저 感慨가 無量할 뿐이다.

光復 30年과 더불어 中進上位圈에 치달은 富強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軍陣齒科의 飛躍的인 發展相을 바라볼때 創設當時 荊棘의 길을 걸든 때가 불현듯이 생각난다.

그때의 狀況은 지금은 故人이 되신 鄭炎先輩님(初代 陸本齒務係長)이 아니고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軍陣 齒科의 成長過程을 連想하니 興味보다는 무서운 惡夢이라고 생각되며 筆者의 性質마저 後天의 으로 김삿갓式인 性格의 異變을 惹起시켰던 時節이기도 했다.

解放後 처음으로 初期軍醫官 志望生인 趙禧增氏(後에 兵科로 轉科했음) 崔恩彰氏(所在不明)와 齒科軍醫官 志望生으로 本人과 金壽男氏(軍醫官으로 감)等 4人이 國防警備隊의 門을 두드린지 3個月만에 入隊通知書를 받고 齒科軍醫官으로서 出發한 것이 벌써 30年前的의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다.

希望과 將來를 꿈꾸며 陸軍副尉

(現中尉)로 任官되어 私服에서 日帝時 下士官軍服) 一部는 將校服도 있었음)을 乘馬服型으로 改造하여 長靴에 長劔을 차고 軍帽은 美製이었으며 清涼里에서 電車에서 내리던 별수 없이 泰陵까지 徒步行軍할 수밖에 없었다.

初創期 國防警備隊時節에는 第1 聯隊 陸士兼務 醫務部에 醫務次長兼 齒務科長으로서 바야흐로 齒科軍醫官生活이 시작된 것이다.

그 當時 齒務科라야 醫務部 한쪽에 齒科室을 두고 Unit Chair 1대를 設置하고 才能이 있다고 생각되는 下士官 2명과 함께 身體檢査, 齒牙保存, 口腔外科診療로 東奔西走하였으며 陸士에다 口腔衛生課目을 設定하여 講義에도 餘念이 없었다.

軍陣醫學의 始祖格인 朴東均將軍(當時로 統衛部 醫務局長)과 申鶴鎮將軍(當時 第1 聯隊 兼 陸士醫務部長)의 前無後無한 協助과 支援으로 軍陣齒科가 本格的으로 始作되었으며 萬若이 두 分의 努力이 없었다면 軍陣齒科는 훨씬 늦게나 誕生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 다음 陸軍에는 筆者가, 海軍에는 張德奎氏(所在不明), 空軍에는 金達澤氏(現 慶熙大齒大學長)가 各 配屬케 되었고 旅團, 師團으로

增軍됨에 따라 그 數는 차츰 불어났고 陸軍에는 第1 陸軍病院이 永登浦區 大方洞(舊 법덕옥촌자리)에 創設하기에 이르렀다.

아마 이때 부터가 齒科軍醫官이 받은 설음이 始作되었는지도 모른다.

一般 軍醫官은 病院長이 될수 있어도 齒科軍醫官은 病院長이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軍陣齒科로서는 開發의 꽃이 滿發했으나 筆者個人에게는 시들은 장미꽃과 같이 거치른 가지만 돌아있었다.

上級者인 筆者는 永遠한 科長으로서 下級者인 病院長의 指示를 받아 가면서 勤務해야만 했다.

筆者는 몇몇 戰友들을 勸誘도 있고 해서 步兵科로 轉科를 해야겠다는 決心을 굳힌적도 있으나 마음이 弱해서였는지 그냥 주저 앉기로 했다.

外道아닌 外道生活을 계속하자니 자연이 싫증이 나기도 했으나 默默地 같은 일에 熱中했다. 그러나 增軍에 따른 잇다른 部隊創設, 創設 그리고 또 創設의 連續이었다.

齒科軍醫官으로서 經驗이 많아져인지, 일福이 터져서인지, 고분고분 일을 잘해서 었는지— 部隊創設 하면 筆者는 藥房에 甘草같이 쫓아 다녀야 했다.

陸軍病院副官 兼 齒科部長, 陸軍野戰醫務團 및 陸軍醫務團副團長, 陸軍醫務監室 行政課長, 陸軍軍醫學校副校長, 陸軍軍事援護處次長, 第1醫務大隊長 等等 橫의 支援을 하다가 陸本 齒務課長을 終着驛으로 青春을 불사른 齒科軍醫官生活을 끝마쳤다.

過去를 想起하면 말못할 일들이 한두가지 아니다. 말(馬) 한마리 없는데도 擔當官을 係나課로 昇格시켜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齒務係나 課의 昇格은 時期尙早라는 論難은 그때나 지금이나 擔當官→係長→課長→係長→課→擔當官으로 膜돌고 있는 現下齒科界를 보면 그때 惡夢이 되살아 난다.

그렇다고 齒科軍醫官生活中 痛快한 一面도 없지는 않았다. 軍醫學校 教育資料 蒐集次 前方部隊를 巡訪하다가 顎顔面 患者가 많은 것을 보고 討論끝에 第1陸軍病院으로 後送키로 決定하여 後送은 시켰으나 執刀 問題로 異論이 紛紛했다. 그러나 美軍醫務敎本에 「顎顔面患者의 執刀는 齒科軍醫官이 하고」라는 條項으로 齒科軍醫官의 所管으로 落着되어 結局 齒科軍醫官이 手術을 맡아던 것은 一大 快學다 아니할수 없다. 그 功績은 現 慶北大醫大 齒醫學科 科長인 李烈熙氏와 學究派인 鄭淳慶氏의 不徹晝夜의

나는 努力으로서 우리 領域을 保護했다고 할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좀 아슬아슬 했던 일이 있었다. 外的으로는 軍醫務教育課程(渡美派遣)에서 豫科修了者가 아니라고 教育資格論이 學論되고, 內的으로 같은 4年制 出身인 藥劑將校가 무엇때문에 齒科軍醫官단 中尉로 任官하느냐 한 不當性을 指摘, 少尉 格下論이 軍當局에서 決定段階에 이르게되니 몹시 多급한 나머지 大韓齒科醫師協會와 서울大齒大와 連鎖的 會議結果 齒科大學에도 豫科를 두기로 大齒定期總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 通過되어 서울大齒大도 豫科가 생김으로써 一段落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健在하시지만 齒科醫學界發展에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시며 獻身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元老 李有慶 先輩님의 勞苦의 結晶이라고 할수 있겠다.

齒科醫學界가 걸어오는 동안 李有慶 先輩가 끼친 有形無形의 礎石을 이룩해 주신데 있어 그 人格을 나는 恒常 尊敬하고 있으며, 衆口難坊같은 境地에서도 毅然히 先驅者의 力量을 發揮하며 齒科用移動診療車를 誕生시킨 일은 정말 快學였다. 그 結實을 맺도록 한 金用瑄 先輩(現 延世大 齒大學長)에게도 滿腔

의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또 한가지는 現 陸軍中央齒科 技工所가 생겨난 當時를 回想해 보기로 하자.

筆者가 豫編을 앞두고 타이코늄 機械導入 및 運營計劃을 樹立하기 爲하여 前後方을 轉轉하면서 資料의 蒐集과 數次例에 걸친 協議을 거친 끝에 基礎工事的 決裁를 받았다. 軍陣齒科에게는 가장 큰 贈物中에 하나이리라.

지금은 大邱에서 開業中인 崔享坤氏는 지금의 陸軍中央齒科 技工所 創設에 一級功勞者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齒科軍醫官生活은 나에게는 忘却될수 없는 旅路이다. 除隊後에 社會 再修生인 軍人 出身에 對한 齒科界와의 對話없는 廣場, 固執不通, 指導層의 不協和音等은 또한 次例의 허전함을 안겨 주기도 했다.

現在 軍陣齒科醫師會의 運營狀況이나 齒科軍醫官生活이 어떤지는 모르나 先輩의 한 사람인 筆者 當時에는 많은 서러움이 끊일줄 몰랐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頭書없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齒科軍醫官의 名譽와 威信을 지켜나가도록 일깨워 주신 故 鄭炎先輩님의 靈前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東一齒科材料商會
TEL (96) 8519